

KIDI  
07/10/15

# 해외보험동향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Insurance Research Center

## ◆ 북미

- III, 미국 생명보험료율 지속 하락 전망
- 부시 미대통령, 어린이 건강보험 법안 거부
- 신기술을 이용한 10대운전자 사고방지 노력

## ◆ 유럽

- 영국 보험업계, 정부에 더 많은 홍수방어비용 요구
- FSA, PPI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고
- 2007 영국 가계성 재물보험의 구매행태 분석

## ◆ 일본

- 대형 생보사들 고객과 접점 확대를 위한 내점형 점포 확대
- 금융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심의회 개최
- 세계 가계자산은 약 100조 달러, 일본의 성장은 최저

## ◆ 중국

- 중국생명, 보험예정이율 3.3%짜리 상품 농촌에서 '대박'
- 네덜란드 ING, '중국 내 생보사 합병계획 없다'
- 중국, 5개 중소 보험사 주식투자자격 확보

##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 III, 미국 생명보험료를 지속 하락 전망

- 미국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의 부사장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Steven Weisbart 박사는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생명보험의 보험료하락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정기생명보험의 경우 계속적인 보험료를 하락으로 2008년에는 1990년대 후반에 비해 두자리수의 보험료 감소가 예상됨.
  - 예를 들어, 비흡연자인 40세의 남성이 2008년에 보험금 5십만 달러의 20년 정기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표준위험체(standard risk)로 분류되는 경우 연간 보험료가 725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 보험료율의 하락은 정기생명보험 뿐만이 아니라 종신생명보험, 유니버설생명보험, 변액유니버설생명보험 등도 마찬가지로 예상됨.
  
- 생명보험료율이 하락하는 것은 생명보험의 주요 구매 연령대인 25~34세 그룹에서의 사망률이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임.
  -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에 따르면 1996년 25~34세 그룹의 사망률은 100,000명당 177.8명이었으나 2004년 161.8명으로 10%가량 하락함.
  - 또한 보험사에 우호적인 투자, 이자율 환경과 M&A를 통한 운영효율성 향상 등의 요인도 보험료를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 III는 생명보험을 가입하려는 미국인들에게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이 충분치 않을 경우 현재의 보험에 추가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충분한 보험금의 다른 보험에 새롭게 가입할 것을 추천함.
  - 이것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금이 큰 경우에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U.S Insurance News, 10/8)

## □ 부시 미대통령, 어린이 건강보험 법안 거부

- 10월 3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미 공표한 바와 같이 어린이 건강보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
  - 부시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4번째이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에서 공격당할 것으로 보임.
  - 부시는 거부 성명서에서 의회가 건강보험체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함.
  
-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660만 명의 대상자를 1000만 명이 상으로 늘리는 법안은 이례적으로 양당 모두의 지지를 얻음.
  - 동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6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며 이 금액은 현재의 지출보다 350억 달러 많은 액수이고 부시 대통령의 제안보다 300억 달러가 많은 금액임.
  - 부시와 그의 지지자들은 동 법안이 건강보험의 연방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으며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보험을 제공하자는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 중산층 어린이들까지 커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이 연방정부의 보상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보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함.
  
- 정치권에서는 부시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고 있으며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남.
  - Edward M. Kennedy 상원의원은 5000억 달러를 이라크에 내던지는 대통령이 미국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그보다 작은 액수를 지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비난함.
  - Charles E. Schumer 상원의원은 “우리는 부시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으며 상원은 그것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고 말함.

*(New York Times, 10/3)*

## □ 신기술을 이용한 10대운전자 사고방지 노력

- 미국의 몇몇 자동차 보험사는 10대운전자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10대들의 운전습관을 부모가 모니터할 수 있도록 차내 카메라나 GPS장치들을 제공하기 시작함.
  - 교통사고는 미국 10대들의 주요 사망요인이며 10대운전자의 사망률은 25~69세 운전자 사망률보다 네 배나 높고 2005년 5,288명의 10대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함.
  - Teen Safe Driver라는 프로그램 하에서는 센서가 차선이탈, 급제동, 급출발, 충돌 등을 감시하는 가운데, 카메라는 차도와 운전자의 영상 및 음성을 기록하여 분석센터로 보내고, 센터는 논평과 팁을 추가하여 부모에게 제공함.
- 10대운전자들은 이러한 장치들에 대해 당혹한 반응을 보임.
  - 파이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 10대 운전자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어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고 말함.
  - 장비회사인 DriveCam 관계자는 사생활보호를 위해 개인적인 사항이나 대화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보내지지 않는다고 설명함.
- 차내 카메라 장치 외에도 GPS를 이용한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음.
  - 시애틀의 보험사 Safeco는 2년간 한 달에 14.99 달러의 비용으로, 집으로부터 5마일 이상 벗어나거나 지정된 최고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GPS 프로그램을 운용
  - AIG그룹의 AIG 자동차 보험도 지난 4월 비슷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MobileTeen GPS 프로그램을 제공
  - 자동차보험사가 제공하는 이러한 장치들은 10대들의 운전습관을 바로잡아 보험료를 낮추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

(Associated Press, 10/10)

##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 영국 보험업계, 정부에 더 많은 홍수방어비용 요구

- 올 여름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 일대가 1947년 이래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은 것과 관련하여, 최근 영국의 보험업계는 홍수 피해 반복을 감소시키기 위해 홍수방어 비용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였음.
- 영국보험자협회(ABI)는 하천, 연안 및 수면의 범람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물 구축 및 개선비용으로 책정된 현재의 예산을 증가시키기로 약속함.
  - 현행의 연간 5억 7천 파운드 → 2010년~2011년까지 8억 파운드로 증가
- ABI는 홍수복구부문을 포함한 경제 각 부처의 장관들이 모인 회의에 참석하여, 올 여름의 홍수로 인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ABI는 Hull, Sheffield, Doncaster와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보험회사는 주택, 사업체, 자동차에 입은 손해로 13만 건 이상의 클레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또한 북부지방과 글러스터셔 부근에서 청구된 보험금이 약 30억 파운드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힘.
- ABI의 협회장인 Stephen Haddrill은 보험업계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지원 가능한 모든 부문의 일을 협조하고 있다고 밝힘과 동시에 정부에 피해복구의 장기화 우려를 경고함.
  - 이에 대해 홍수복구부문의 장관인 John Healey는 정부도 보험산업과 밀접한 업무협조를 지속하여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BBC News, 10/2)

## □ FSA, PPI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고

- FSA는 PPI(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소득보장보험) 상품을 대량으로 불완전판매한 회사에 대해 사당 1백만 파운드 이상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PPI는 질병이나 실업과 같은 위기 상황시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은행 및 금융기관 등은 대출, 신용카드, 자동차할부금융, 모기지 등과 연계하여 판매하는 데, 최근 일부에서는 은행, 금융기관, 기타 판매회사에서 동 상품을 불완전 판매함으로써 연간 40억 파운드를 부정하게 갈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됨.
- FSA는 은행, 금융기관을 포함한 판매회사의 2/3가 상품의 보장범위, 담보 및 가격조건에 대한 설명을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현재 24개 회사에 추가조사를 통지한 상태임.
- 은행과 금융기관 등 150개 판매회사를 방문 조사한 결과 2/3 이상이 소비자의 개별 조건에 맞도록 설계해주지 못하였거나, 보장범위와 가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방문 조사시 설계사 4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재무상태를 측정하여 최적의 금융설계를 제공하는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32%의 전속설계사만이 동 테스트에 통과하였음.
  - FSA의 대변인인 Clive Briault는 몇몇 회사들이 여전히 판매행태에 개선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음에 매우 실망하였다고 밝혔으며, 일부 소비자 단체는 FSA가 불완전판매를 행한 회사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
  -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 금융옴브즈맨서비스)에는 지난해 접수된 불만건수의 50% 이상이 PPI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것으로 드러남.

(Daily Mail, 9/26)

## □ 2007 영국 가계성 재물보험의 구매행태 분석

- ‘Research and Markets’는 최근 영국 가계성 재물보험 시장에서 소비자 행태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고객 로열티와 보험회사 선택동기 등과 같은 영역에서의 현행 구매 트렌드를 분석함.
-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보험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보험갱신시 전화나 대면접촉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들에 비해 보험회사를 바꾸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2007년에 온라인으로 가계성 재물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중 31%가 가계성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회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음.
- 동 보고서의 주요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계성 재물보험의 판매에서 대면접촉 방식은 감소하고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 판매방식을 통한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음.
  -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가계성 재물보험 구매시 보험회사 선택에 있어 저렴한 보험료를 우선시 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소비자들은 다른 채널을 활용하는 고객에 비해 더 큰 가격 민감도를 보임.
  - 보험회사는 주로 건물 및 동산담보 상품 혹은 동산만 단독으로 담보하는 상품을 제공
  - 2006년 동산담보 상품에 대한 광고비로 보험회사는 1,390만 영국 파운드를 지출하였으며 광고비의 대부분은 다이렉트 메일에 사용되었으며, 다이렉트 메일은 건물 및 동산담보 상품의 마케팅에 있어 가장 주요한 수단임.
  - 다이렉트 메일 다음으로 TV광고가 광고비 지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신문광고는 광고전략에서 minor한 수단으로 밀려남.

*(Insurance Newsnet, 10/8)*

##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 대형 생보사들 고객과 점점 확대를 위한 내점형 점포 확대

-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내점형 점포의 사업추진을 확대하고 있음.
  - 다이이치생명보험은 금년 봄 시내 중심가 ‘나카역’에 첫 번째 내점형 점포를 오픈한 이후 수도권의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점포를 늘려갈 계획
  - 니혼생명보험은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포 개설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자택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전통적 영업방식이 경시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점형 점포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임.
  - 니혼생명 간부는 “보험모집 영업현장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이나 소비자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자택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종전의 영업이 미움 받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내점형 점포는 이러한 고객의 심리에 부응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반이 된다.”고 언급함.
  - 내점형 점포는 기존 계약자가 궁금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컨설팅 기능을 갖추는 것이 특징
  
- 다이이치생명은 금년 3월에 도쿄 시내중심가의 역구내에 ‘생애 설계파크’를 오픈하였으며 니혼생명은 ‘라이프 프라자’를 오픈하여 대기 중인 보험모집인이 내점 고객의 보험계약 상담에 응대하고 있음.
  
- 자기 회사의 상품뿐만이 아니라 타 회사의 상품도 판매하는 내점형 점포도 등장
  - 스미토모생명보험, 미츠이생명보험, 미츠이스미토모은행의 3사가 공동출자 한 「보험디자이너즈가」는 수도권의 쇼핑센터 등에 10개의 점포를 개설
  - 이 점포는 자기 회사의 상품 마케팅의 장소이기 때문에 점포에 생명보험 회사의 모집인은 없다고 함.

(FujiSankei Business i. 10/13)

## □ 금융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심의회 개최

- 금융심의회(총리 자문기관)는 지난 3일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감.
  - 은행과 증권 간의 진입장벽 규제 등 4개 항목에 대해 제도상의 검토를 추진하여 올해 안에 보고서를 정리한다는 방침
  - 검토 과제는 첫째가 상장 투자신탁(ETF)의 범위 확대 등 거래소의 취급 상품의 확대, 둘째, 하이 리스크 상품 등 전문투자자 거래의 활성화, 셋째 은행과 증권간의 진입장벽 규제, 넷째 과징금 제도의 재검토임.
  -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회사들은 상품의 품질도 높여야 하고 시장 경쟁에 따라 보험료도 인하될 것으로 일본 언론은 전망
  
-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연구회를 신설하여 전문적으로 검토함.
  - 또한, ETF의 범위 확대방안은 현행 금전 등의 현물이나 선물을 포함하여 상품 취급에 대해 논의하며, 상품거래소와 증권거래소와의 상품통합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추진할 예정
  
- 같은 날의 제1회 회의에서는 “시장기능의 강화는 장기적으로 고용 확대 등과 연계하여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음.

(Nikkan Kogyo Shimbun 10/4)

## □ 세계 가계자산은 약 100조 달러, 일본의 성장은 최저

- 미국의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말 현금과 주식 등을 합한 세계의 가계자산이 전년대비 7.5% 증가한 97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세계 가계자산은 2001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가 두 자리수 증가한데 반해 일본의 가계자산 증가는 3.9%에 불과하여 최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남.
  - 이 조사는 2000년 이후 7번째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6%를 차지하는 62개국의 가계나 개인 자산을 대상으로 함.
  - 국가·지역별 자산액은 미국(36조 2000억 달러), 유럽(33조 달러), 일본(11조 9000억 달러),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10조 6000억 달러), 라틴아메리카(3조 4000억 달러), 중동·아프리카(2조 9000억 달러)의 순임.
  - 아시아·태평양과 라틴 아메리카가 각각 전년대비 12.8% 증가하고, 중동·아프리카가 8.9% 증가, 미국이 8%증가, 유럽이 5.8%였음.
  
-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약 960만에 이르렀으며 세계 백만장자가 전체 조사대상 비율의 0.7%에 지나지 않기는 하지만, 보유자산은 33조 2000억 달러와 전체의 약 3분의 1에 이름.
  - 세계 백만장자 많은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순임.
  - 또한, 세계 백만장자의 50%는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유럽(25%), 아시아·태평양(20%)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FujiSankei Business i. 10/9)

##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 중국생명, 보험예정이율 3.3%짜리 상품 농촌에서 ‘대박’

- 중국생명(中國人壽)은 금년 3월부터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장쑤(江蘇) 등 3개 성(省) 농촌지역에서 예정이율 3.3%짜리 양로보험을 시범적으로 판매해 예상 외의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해당 보험상품은 현재 2.5%인 예정이율보다 0.8% 포인트 높아 보감위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 보험상품이며, 시범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음.
- 지난 80년대 초, 당시 중국 생명이 농촌시장에 주력상품으로 내 놓았던 1위안짜리 보험상품을 소비자들이 줄을 서서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보험대리인(생활설계사)들은 이번 양로보험 구매 열기가 당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함.
  - 보험료가 100위안으로 인상되었지만 농민들에게는 그다지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 듯 하다는 것이 실제 상품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대리인들의 설명임.
- 이 보험은 현존하는 보험상품 중 예정이율이 가장 높다는 점 이외에도 만기환급금 역시 타 보험에 비해 높다는 점이 판매열기를 가열시키는 요인임.
  - 만기환급금률이 타보험에 비해 높을 수 있는 이유는, 중국생명이 해당 보험상품의 영업비를 면제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임.
  - 9월 말 현재 허베이 2억 위안, 장쑤, 허난이 각각 1.9억, 1.8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를 거수하여 세 지역 모두 처음 설정한 연간 판매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21세기경제보도, 10/12)

## □ 네덜란드 ING, '중국 내 생보사 합병계획 없다'

- 중국에는 합자생명보험회사 중 태평양애틀나(太平洋安泰)와 쇼우창애틀나(首創安泰) 등 두 개의 '애틀나'가 있는데, 이 두 회사의 외국 측 대주주는 모두 네덜란드 ING임.
  - 1998년 설립된 태평양애틀나는 원래 미국의 애틀나생명이 대주주로 있었으나 ING에 피합병된 뒤 주인이 바뀌었으며 합병 이후에도 중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애틀나라는 이름을 사용해왔음.
  - 쇼우창애틀나는 지난 2003년 말 설립되었으며 외국 측 대주주는 ING였으나 중국 시장에 이미 애틀나의 인지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합자회사 명칭에 '애틀나'를 삽입하기로 결정해 설립됨.
- 시장에서는 태평양애틀나의 중국 측 대주주인 태평양보험그룹이 주식시장 일괄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태평양애틀나 지분을 철수할 계획이며, ING는 태평양애틀나와 쇼우창애틀나의 합병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반면,
- ING 아태지역 투자부문 책임자 Hans vander Noordaa는 "두 회사가 각자의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과 같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Noordaa는 ING의 중국업무는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시장이 ING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제한 뒤, "보험회사의 관리 측면에서 보면 합자보험회사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해 여운을 남김.

(제일재경일보, 10/12)

## □ 중국, 5개 중소 보험사 주식투자자격 확보

- 최근 생명인수(生命人壽)가 해외 주식시장 투자 자격을 획득한데 이어, 중국 내 5개 중소 보험사가 보감위로부터 주식투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금번 주식투자 자격을 획득한 보험사는 중앙생명(中英人壽), 자화생명(嘉禾人壽), 따중보험(大衆保險), 정더생명(正德人壽), 양광지주(陽光控股)임.
- 이로써 기존 21개사를 포함 총 26개 보험회사가 자산관리기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국 A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음.
  - 5개사 추가 이전까지 10개 보험자산관리기구는 주식시장 직접투자가 가능하고, 민안보험(民安保險), 민생생명(民生人壽) 등 11개 보험사는 위탁형식의 간접투자만 가능하도록 제한된 상태였음.
- 중국 보감위는 주식투자 허가를 내준 일부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특정 보험상품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수입보험료의 주식투자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를 들면 전통보장형 보험상품이나 배당형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전년도 해당상품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유니버설보험 상품군은 50%, 투자연동형보험 상품군은 8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 등임.
- 최근 보험회사 자산의 주식투자 비중이 5%에서 10%로 늘어난 것과 함께 중소 보험사의 주식투자자격 획득으로 보험회사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매일경제신문, 10/8)

##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6년말	07.9.28(금)	07.10.5(금)	07.10.12(금)	전주대비
금리 (%)	美 10년국채	4.71	4.59	4.64	4.75	+0.11
	英 10년국채	4.73	5.01	4.95	4.00	-0.95
	日 10년국채	1.68	1.68	1.70	1.70	-
주가	美 DJIA	12,463.15	13,895.63	14,066.01	14,093.08	+0.19%
	美 Nasdaq	2,415.29	2,701.50	2,780.32	2,805.68	+0.91%
	英 FTSE	6,240.90	6,466.80	6,595.80	6,730.70	+2.05%
	獨 DAX	6,596.92	7,861.51	8,002.18	8,041.26	+0.49%
	佛 CAC40	5,541.76	5,715.69	5,843.24	5,843.95	+0.01%
	日 Nikkei225	17,225.83	16,785.69	17,065.04	17,331.17	+1.56%
	中 상해종합	2,675.47	5,552.30	5,552.30	5,903.26	+6.32%
	대만 가권	7,823.72	9,476.52	9,623.88	9,496.47	-1.32%
	홍콩 항셱	19,964.72	27,142.47	27,831.52	28,838.37	+3.62%
환율	엔/달러	118.90	115.56	116.46	117.33	+0.87
	달러/유로	1.3148	1.4151	1.4139	1.4202	+0.0063
	위안/달러	7.8135	7.5145	7.5060	7.5060	-